

포천사회 知識人 ㉞

경북대학 권순복 교수

지역사회 口腔보건시스템 구축 協助

하나의 상황을 모든 과목이 동원되어 解決하는 수업 필요

“건강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말하며,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라고 한다. 건강은 행복의 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구강은 저작과 발음 및 심미기능을 하는 인체의 중요한 소화기관의 첫 관문으로서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구강건강은 행복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중략)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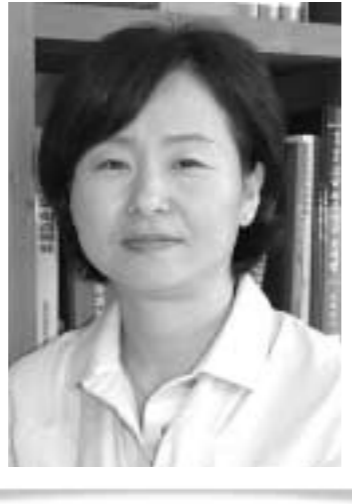
이상은 경북대학 치위생과 권순복(39·사진)교수가 'Scaling 환자의 치석부착 정도와 구강보건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 권 교수는 치석부착 정도와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성별, 잇솔질 횟수, 잇솔질 소요시간, 잇솔질 방법, 스케일링 받는 주기, 스케일링 받은 경험에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각각의 가정구강보건관리를 위해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치주병의 유행율은 일반적으로 치석부착 정도가 많은 사람에게 치주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치석이 치주병의 원인이라고 볼 때 부착된 치석은 전문가의 처치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치아에 일단 치석이 부착되면 칫솔질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6개월에 1번 정도는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권 교수는 1주일에 6회 시간을 정해 지역 주민들의 스케일링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치위생과 학과사무실(031-539-5349)로 예약하면 학생들의 실습시간에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칫솔도 무료로 제공 및 치아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예약이 가능하다.

또 경북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포천시보건소의 구강보건교육활동에도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지원은 물론 가나안의 집에서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을 학교로 모셔서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있다.

특히 민방위교육시간을 활용한 구강보건교육에 교수진을 지원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인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스케일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권 교수는 노인 분들의 치아 관리에 대한 자포자기를 경계한다. 노인분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하는 생각으로 치아관리에 소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야배'에는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야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1996년에 경북대학에 부임해 잇몸을 깨끗하게 유지·관리시키는 과목인 치면세마(스케일링) 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권 교수는 충북 제천군 남당초등학교, 의림여자중학교, 제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박사학위중(치위생 전공)이다. 권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근무지별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다.

'盡人事待天命'을 생활철학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권 교수는 '포괄치위생'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각각 과목별로 나눠져 있는 과목단위수업을 하나의 상황을 놓고 모든 과목이 동원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인 포괄수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수업이 가능해지면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경북대학은 교육과정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모두 동참하여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문제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게 봐야 한다. 크게 생각해야 한다. 통합교육을 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경북대학 치위생과는 100% 취업이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고시 합격률은 97%다. 전국 평균 합격률은 85%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자체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대학은 인성교육을 매주 1시간씩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어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잘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 치위생과는 보건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 지원율도 높다고 한다.

어린이에게는 충치, 20대를 전후로 치주병(잇몸질환), 노인·장애인에게는 상환에 맞는 구강보건교육이 각각 필요하다. 권 교수는 포천지역주민들의 치주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스케일링과 교육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싶다고 한다.

권 교수는 현재 대한치위생과교수협의회 이사로 활동중이며 치위생과 국가고시실기 평가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속학회는 치위생과교육학회와 치면세마 분과학회이며 주요논문 및 저서는 다음과 같다.

- ▶유치원 교사의 구강보건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1996) ▶초등학교 아동의 잇솔질 교육 후 구강보건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1997) ▶Scaling환자의 치석부착 정도와 구강보건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1998) ▶전문대학 간호과 교재 내용 중 구강보건 관련내용에 관한 조사 분석연구(2000) ▶노인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2002) ▶K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만족도 연구(2003) ▶K대학 치위생과 치면세마 경험자의 실습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2005)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2005) ▶치위생학실습지침서(대학교육문화원, 1999) ▶치면세마 총론(고문사, 2003) ▶치면세마실습서(고문사, 2003)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북대학 치위생과 100% 취업률, 97% 국가고시 합격률 자랑

취재파일 농업붕괴 농민만의 재앙 아니다

수입개방 수매가격 하락 '농민 한숨'

농업은 생명산업 ... 경쟁력 대안 마련해야



본지 취재국장 하승완

포천지역 올해 추곡 수매량은 지난해 보다 20%가 감소하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시에 의하면 올해 벼 생산량은 대략 3만2천여톤으로 지난해 3만3천톤에 비해 1천여톤이 감소했다. 이는 벼 재배 면적 감소와 가뭄과 수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천시가 올해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벼는 3천200톤으로 지난해 3천700여톤에 비해 500여톤이 감소했다. 또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긴급지원 정책 지원에서 농업을 통해 매입한 벼는 1만2천톤으로 지난해 1만5천여톤에 비해 3천여톤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농민들이 비축하고 있는 벼는 지난해 1만4천800여톤, 올해 1만16300여톤으로 지난해 보다 1만4천여톤이 증가했다.

농민들이 공공비축용과 농협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은 수매가격 하락으로 풀이된다.

농협수매의 경우 40kg기준, 한가마 가격이 지난해 5만4천원에 비해 4만8천원으로 수매해 무려 6천원이 하락했다.

또 공공비축용 수매의 경우 40kg기준, 포대벼(1등급)는 전년 매입가격인 4만8천450원을 우선 지급하고 산지 쌀값 변동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산물벼(1등급)는 포대벼 우선 지급금(48,450원)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하고 4만7천780원으로 수매한다.

이처럼 수매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은 벼 수매를 기피하고 있다.

포천시의 농업 관계자에 의하면 "추곡수매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이듬해 6-7월경에는 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것은 수매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민은 "일년 동안 지식과 같이 애지중지 키워 온 벼 가격이 떨어져 한숨만 나온다"면서 "정부는 수입개방에만 신경쓰지 말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매가격이 생산비도 안돼 지금 파는 것보다 내년 7월이나 8월쯤은 조금더 가격이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포천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수입개방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대책없이 수입개방으로 국내 농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 국가기반을 유지해 온 농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재 수입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이 무너지고 나면 외국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2배, 3배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다.

농업은 국가를 지탱해 주는 국가기반 산업이다.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업을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포천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대략 1만7천여명에 이른다. 또 농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매년 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3만2천여톤이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농지면적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시는 그동안 해솔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에 들어갔다. 또 쌀의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혹은 유기농법에 의한 쌀을 생산하고 이를 브랜드화해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몇몇 농민이 시행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포천 전체 지역 혹은 읍면 단위로 묶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시행초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민들의 참여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포천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쌀 소비운동

추곡수매는 농민들이 일년간 일해 받는 연봉과 같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연봉이 삭감된다면 그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를 짓어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쌀을 생산해도 판매할 곳이 없어 고민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포천일교 동문회가 산촌초등학교 동문회가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에 나서 호응을 받았다는 점이다.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2만6천800여톤에 불과하다.

여기에 일동농협과 영북농협 등에서 지역쌀 애용하기 운동은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각급 단체와 포천시민들이 지역쌀을 애용한다면 얼마되지 않는 지역쌀 판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농협과 관계기관 노력 요구

농업의 붕괴는 농민만의 재앙이 아니다. 큰 관점에서는 국민의 재앙이요, 작은 의미에서 보면 지역의 재앙인 것이다. 특히 농민들이 조합원인 농협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농협은 농민들이 출자해 만들 조직이다. 농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농협은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조합원은 남이 아닌 내 가족이기 때문이다. 추곡수매 시기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농협은 이 시기에 벼를 수매하고 쌀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농민을 대신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질개선을 위한 농민교육을 비롯한 저온저장 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농민을 대신해 쌀 시장 변동에 따라 판매량 조절이 필요하다. 농협이 밟고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죽는다는 농민의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특급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전기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



안 병 호 대표이사



▶변압기 부하 점검